

2번방의 “독립만세”...유관순과의 만남은 운명이었다

[3 · 1운동 백년과 여성]

이신애, 만 28살에 항일 독립운동 참여 결심
3·1운동 검은상장 달아주며 독립운동가 첫 발
항일 여성독립단체 활동, 군자금 마련 대활약
‘전협’ 만나 대동단 가입...부인단 대표로 활약
‘제2독립선언문’ 서명 33인 대표중 유일 여성
안국동 경찰관주재소 앞 시위 주동자로 체포
형무소에서 3·1운동 1주년 맞아 다시 ‘만세’



사람은 지금 거수하라”는 손 목사의 말에 이신애는 망설임이 없었다. “조국을 위하여 죽는 것이 왜인 밑에서 숨을 죽이며 호화롭게 잘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독립투사’ 이신애의 삶은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비밀리에 항일여성독립운동단체들이 속속이 결성되던 그해 5월께 이신애는 혈성부인회에 몸을 담았다. 수감된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남은 가족들을 돌봤다. 그는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봉사해주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원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 독립운동가 전협을 만났다. 전협은 3·1 만세운동 후 상해에서 김구와 독립운동을 논의해 서울로 돌아와 있던 터였다. 그는 항일 비밀단체를 조직 중이었다. 그 단체는 3·1운동 후 조직된 최대 규모의



항일 지하조직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민족대동단’이 된다. 이신애를 만났을 때, 전협은 그 빛나는 눈동자를 보았다. “3·1운동과 같은 제2회 조선독립선언을 할 것인데, 우리와 함께하겠나.” 전협의 제안에 이신애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죽을 때 입 없이 죽겠습니다.” 이신애는 그렇게 ‘선서’를 하고 대동단의 일원이 됐다. 11개 지단 중 하나인 대동단 부인단의 총대를 맡았다. 그렇게 항일운동최전선의 무대에 올랐다. 대동단의 활동은 거침없었다. 파리강화회의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 민족 독립의지를 담은 진정서를 작성해 보내는 지하문서 활동을 했다. 3.1운동과 같은 ‘개천절 만세 운동’ 등 대규모 운동도 계획했다. 그 굵직굵직한 활동 중에는 ‘의

친왕 이강 상해 망명 작전’도 있었다. 상해로 간 의친왕을 임시정부에 참여시키고 ‘제2차 독립선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계획에 이신애의 이름이 빠질 수 없었다. 이강이 궁 밖으로 빠져나갈 때 궁 인과의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 이신애였다. 왕의 아들의 안전한 탈출은 내 손에 달렸다는 생각이 이신애를 압도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의친왕은 무사히 궁을 빠져나갔고 압록강을 지나 만주 안동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탈출계획을 눈치챈 경찰이 역 앞에 있었다. 망명은 물거품이 됐다. 이강은 서울로 돌아왔고 전협 등 함께했던 대동단 일원들은 체포됐다. 수년 이래 있던 대동단의 실체도 드러났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다행히 이신애는 체포장에서 벗어났다. 흔적 없이 사라진 동지들이 눈에 밟혔지만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었다. 이신애는 부인단의 대표였다. 그가 조국을 위해 삶을 바치자 대동단 합류를 설득해 데려온 이들이 또 여럿이었다. “멈출 수 없다.” 이신애는 마음을 굳혔다. 3·1운동으로 불태우다가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했다. 다행히 뜻을 함께하는 단원들이 몇 남아 있었다. 이들은 제2독립선언문 발표와 함께 만세운동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만세를 외치며 흔들 태극기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율러퍼질 선언문 작성에 공을 들였다. 선언문에는 33명의 이름이 올

랐다. 이신애도 33인 중 하나였다. 유일한 여성이었다. 1919년 11월28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 경찰관주재소 앞에 이신애와 대동단원 4명이 섰다. 이들은 ‘대한독립만세’가 써진 깃발과 수건을 휘두르며 행인들을 모았다. 20여명 정도가 모였을 때 이신애가 선두에서 소리쳤다. “대한 독립 만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연달아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태극기와 선언문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건 한순간이었다. 일경들이 대동단원들을 에워쌌다. 이신애는 시위 주동자로 지목됐다. 그렇게 서대문형무소로 끌려왔던 게 석 달 전이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이신애는 생각했다. 고작 1년 사이,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져 있었다. 교편을 잡았던 원산에서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해야 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석 달 간 차가운 감옥에 있으면서 수도없이 목청껏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꿈을 꿨다. 더는 꿈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었다. ‘병’... ‘병’ 괴종시계가 두 번 울렸다. 시간이 됐다. 신호였다. 이신애는 감옥던 눈을 떴다. 그리고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수천명의 동지들의 목소리가 형무소를 가득 채웠다. 이신애는 생각했다. ‘이곳이 광장이요. 이것이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다.’ 1년 전처럼 이신애의 눈이 다시 빛났다.

뉴스

‘항일영웅’ 이신애는 누구...독립선언문 33인 중 유일한 여성

항일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이신애는 1891년 1월20일 평안북도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아 여성교육의 요람이라는 개성 호수둔여학교와 원산 성경여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했다. 그리고 교사이자 전도사가 됐다. 사람들의 존경과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신애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삶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한다. 사실 이신애는 처음부터 ‘편하게’ 살 생각이 없었다. 이신애가 교편을 잡은 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이었다. 이신애는 지금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족운동의 ‘적

기’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걸 사명으로 삼았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흐른 1918년, 그녀의 인생이 뒤바뀐다. 서울 정동감리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손정도 목사를 만나면서부터다. 그녀가 항일투사로 ‘전향’한 데는 손정도 목사의 영향이 컸다. 1918년 어느 겨울날 손 목사는 원산 시내에 있는 원산교회에서 특별 부흥강사로 초빙돼 설교했다. 당시 손 목사는 “각 민족은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소개하며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감명을 받은 이신애는 1919년 2월, 교편을 내려놓고 민

족운동의 중심지인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이신애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5월부터는 항일여성독립운동단체인 혈성부인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수감된 독립투사들을 돌보는 한편 임시정부 활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으는 데 힘썼다. 특히 이신애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적극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총살할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 정보를 주고 그의 은신을 도왔다. 이신애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단연 ‘조선민족대동단’ 활동이다. 이신애는 부인단 총대에 선출돼 여성동지들을 비롯한 단원들을 모으는 데 힘썼다. 또 대동단의 주요 계획 중 하나였던 ‘의친왕 이강의 중

기독교 받아들인 집안 덕 근대교육 혜택
‘여성교육’ 요람 학교에서 수학하고 교편
손정도 목사 설교 후 상경해 ‘독립투사’로
말년 가난...정부 마련 집서 1982년 별세

국 망명’ 작전에도 가담했다. 당시 대동단은 이강을 상해로 망명시켜 임시정부에서 활동할 것을 계획했다. 이신애는 연락책 역할을 맡았고 무사히 이강은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압록강을 거쳐 도착한 안동역에서 이강이 체포되며, 상해망명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대동단원들이 잡혀가 조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신애는 관련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제2조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33인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1919년 11월28일 서울 안국동 경찰관 주재소 앞 광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 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이신애는 예심 진행 중 3·1운동 1주년을 맞았다. 이신애는 같은 형무소에 있던 유관순과 옥중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 일로 이신애는 유방과

고막이 파열되는 극한 고문을 받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러나 이신애는 굴하지 않았다. 옥중 생활은 오전 7시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신애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물레만든 태극기를 방 안에 걸고 경례를 했다. 의친왕 망명 사건을 가르키는 대동단사건 등에 가담한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은 후 1925년 3월, 이신애는 출옥했다. 출옥 후 이신애는 교사였던 역량을 살려 여성교육활동에 힘썼다. 여학교를 설립해 교편을 잡거나 유치원을 세웠다. 1945년 해방 후에는 한국부인회를 조직했고 1947년부터 11년간은 부녀계몽운동에 진행했다. 말년은 간고(艱苦)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대전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 1982년 세상을 떠났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